

## 스타트업의 혁신기술! K-방산의 미래가 되다 「모두의 챌린지 방산」 추진

- 중기부, 국방부 오픈이노베이션 연계,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기회 확대
- 챌린지 추진경과, 방산 트렌드 분석 및 군·스타트업간 협업 과제 소개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와 국방부(장관 안규백)은 8일(수)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‘모두의 챌린지 방산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### 《 모두의 챌린지 방산 개요 》

- **(일시/장소)** 4.8(수) 14:00 /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아주르홀
- **(주요내용)** ‘모두의 챌린지 방산’ 경과 보고, 방산 트렌드 분석 강의 및 네트워킹 등
- **(참석)** 중기부 제1차관, 국방부 차관보, 육·해·공군·해병대 등 협업 과제 관계자, 방산 챌린지 참여 창업기업 대표자, 지원기관 관계자 등 60여명

이 자리는 지난 2월 발표된 ‘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’ 후속으로,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,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국방 기술혁신 가속화와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, 드론,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, 혁신 창업기업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.

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의 경우 군 정보 접근 제한, 실증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방산 생태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.

이에 중기부와 국방부는 민간의 국방기술 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「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」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「모두의 챌린지 방산」을 통해 군·수요 기반 협업과제 발굴, 스타트업과의 매칭 및 기술 실증(Proof of Concept, 이하 PoC),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한다.

### “군·창업기업 협업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본격 추진”

이번 방산 챌린지는 군에 필요한 기술과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①군 제안 과제인 탑다운(Top-down) 방식과 ②창업기업 제안 기술인 바텀업(Bottom-up)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, 최종 10개 과제를 선정했다.

#### < 선정 과제 현황 >

분야	소관	협업 과제명
탑다운 (Top-Down, 5개)	육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극초소형 드론(길이 20cm 내외) 탐지 및 파괴(무력화)를 위한 대응 기술</li> </ul>
	해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능동소음제어(ANC) 기반 함정/어뢰 추진 소음 최소화 기술 개발</li> </ul>
	공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AI 기반 유·무인기 공중충돌 예측·회피 시스템</li> </ul>
	해병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상륙작전 기만을 위한 가변형 AI 디코이 군집체계 개발</li> </ul>
바텀업 (Bottom-Up, 5개)	자율제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360° 가상투어 기반의 육군 중요시설 원격 점검 및 통합 관리 플랫폼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탄약대대 예초 무인화를 위한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예초로봇 고도화</li> </ul>
	공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드론 스테이션 기반 24시간 자동 순찰</li> <li>■ 항공교통관리 자동화</li> </ul>

선정된 과제에는 최대 1억원 규모 협업 자금(PoC) 지원, 군 실증 및 시범구매 연계 후속 연구개발(최대 6억원 규모)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.

### “「모두의 챌린지」 시리즈 중 방산 분야 본격 출범”

「모두의 챌린지」는 인공지능, 방산, 로봇, 바이오, 기후테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 플랫폼이다.

이번 방산 챌린지는 인공지능 분야에 이어 두 번째 핵심 분야로, 국방과 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·군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.

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“민간의 혁신 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되는 것이 미래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”이라며, “앞으로, **창업기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**”고 밝혔다.

원종대 국방부 차관보는 “국방부는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**민간 기업의 군 진입 확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**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, **민간 첨단기술의 군 도입을 촉진·가속화해**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	책임자	과 장	이준희 (044-204-7640)
		담당자	사무관	빈한욱 (044-204-7671)
	주무관		박세진 (044-204-7643)	
	국방부 국방연구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근희 (02-748-5410)
담당자		서기관	김솔뫼 (02-748-5418)	